

한국여자골프 “이번엔 꼭 우승한다”

네차례 우승 놓친 LPGA 내일 KIA클래식 오픈

작년 준우승 신지애·재작년 우승 서희경 등 출전

제시카 코르다(미국), 청아니(대만)·미야자토 아이(일본), 안젤라 스 탠퍼드(미국), 청아니··

을 시즌 들어 열린 네 차례의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서 한국 선수의 우승을 차례로 가로 막은 주인공들이다.

지난달 12일 끝난 시즌 개막전 호 주여자오픈에서 유소연(한화)과 서희경(하이트)은 6명이 겨룬 연장전에 합류했지만 코르다에게 무릎을 뚫었 다.

그 후 1주일 만에 열린 타일랜 드 대회에선 신지애(미래에셋)가 우 승 경쟁을 벌였지만 청아니와 미야자 토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운 3위에 머물렀다.

시즌 3번째 대회인 HSBC 위민스 웹피언스에선 최나연(SK텔레콤)과 재미교포 제니 신(신지은)이 연장전에 올랐지만 스텐퍼드의 벽에 막혔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열린 첫 대 회인 RR 도넬리 파운더스컵에서 세 계 여자골프랭킹 1위인 청아니가 장 애율로 다시 등장했다. 최나연이 막 판까지 끈 이 대회의 우승 경쟁에서 청아니는 1타 차 선두를 지켜 우승컵에 입을 맞췄다.

올 들어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고 배를 미셨던 한국 선수들이 이번 주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도전에 나선다.

무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 포니아주 칼스배드 라 코스타 골프장(파72·6490야드)에서 시작되는 KIA 클래식이다.

작년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관왕에 빛나는 김하늘(비씨카드)이 J골프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해 한국선수 통산 102승 째를 노린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우승 소식 을 전한 것은 작년 11월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서 박희영(하나금융그룹)이 101번째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게 마지막이다.

기아클래식은 재작년에 서희경이 초청 선수로 나갔다가 조대 팀피언에 오르고 작년에는 신지애가 준우승하는 등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인 대회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작년 KLPGA 투어에서 대상, 상금왕, 다음왕을 휴는 김하늘은 KIA 클래식에서 한국 선수 시즌 첫 우승의 꿈을 이뤄줄지 주목되고 있다. 김하늘은 지난달 시즌 첫 대회인 호주오픈에 초청 선수로 참가해 1~4라운드 합계 6오버파를 쳐 공동 24위에 올랐었다.

또 올해 우승 문턱까지 갔던 최나연, 서희경, 신지애가 작년 US오픈 웹피언인 유소연, ‘만안’ 박세리(KDB 산은금융그룹), 김인경(하나금융그룹), 박인비, 유선영(정관장) 등과 함께 KIA 클래식 우승에 도전한다.

외국 선수로는 청아니, 미야자토와 더불어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크리스티 카, 폴라 크리머, 스테이시 루이스, 브린티나 린시킴(이상 미국) 등과 함께 KIA 클래식 우승에 도전한다.

외국 선수로는 청아니, 미야자토와 더불어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크리스티 카, 폴라 크리머, 스테이시 루이스, 브린티나 린시킴(이상 미국) 등과 함께 KIA 클래식 우승에 도전한다.



〈신지애〉

호나우두, 브라질 축구협회장 되나



브라질의 축구영웅 호나우두(35) 가 브라질축구협회(CBF)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호나우두는 19일(현지시간) 브라 질 일간지 폴라 데 상파울루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축구협회 회장을 맡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본명이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오 데 리마’인 호나우두는 1993년 브라

질 크루제이루 클럽에서 프로선수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네덜란드 PSV에 인트로벤,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인테 르밀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AC 밀란 등 유럽 명문팀을 두루 거쳐 2009년 브라질 코린치안스에 몸 담았다.

호나우두는 온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18년간 혼연 선수로 뛰며 월드컵에 서 두 차례 우승했고, 세 번이나 국제 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호나우두는 지난해 2월14일 은퇴 를 선언했으며, 6월7일 상파울루 시내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루마니아 대표팀 간의 친선경기에 출전해 공식 은퇴경기를 마쳤다.

호나우두는 은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연합뉴스〉

호나우두는 “축구협회 회장 후보 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프 랭스의 미셀 플라티니나 독일의 프란 츠 베른바워처럼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본명이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오 데 리마’인 호나우두는 1993년 브라

질 크루제이루 클럽에서 프로선수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네덜란드 PSV에 인트로벤, 스 페인 FC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인테 르밀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AC 밀란 등 유럽 명문팀을 두루 거쳐 2009년 브라질 코린치안스에 몸 담았다.

호나우두는 온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18년간 혼연 선수로 뛰며 월드컵에 서 두 차례 우승했고, 세 번이나 국제 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호나우두는 지난해 2월14일 은퇴 를 선언했으며, 6월7일 상파울루 시내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루마니아 대표팀 간의 친선경기에 출전해 공식 은퇴경기를 마쳤다.

호나우두는 은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연합뉴스〉

호나우두는 “축구협회 회장 후보 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프 랭스의 미셀 플라티니나 독일의 프란 츠 베른바워처럼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본명이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오 데 리마’인 호나우두는 1993년 브라

질 크루제이루 클럽에서 프로선수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네덜란드 PSV에 인트로벤, 스 페인 FC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인테 르밀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AC 밀란 등 유럽 명문팀을 두루 거쳐 2009년 브라질 코린치안스에 몸 담았다.

호나우두는 온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18년간 혼연 선수로 뛰며 월드컵에 서 두 차례 우승했고, 세 번이나 국제 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호나우두는 지난해 2월14일 은퇴 를 선언했으며, 6월7일 상파울루 시내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루마니아 대표팀 간의 친선경기에 출전해 공식 은퇴경기를 마쳤다.

호나우두는 은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연합뉴스〉

호나우두는 “축구협회 회장 후보 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프 랭스의 미셀 플라티니나 독일의 프란 츠 베른바워처럼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본명이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오 데 리마’인 호나우두는 1993년 브라

질 크루제이루 클럽에서 프로선수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네덜란드 PSV에 인트로벤, 스 페인 FC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인테 르밀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AC 밀란 등 유럽 명문팀을 두루 거쳐 2009년 브라질 코린치안스에 몸 담았다.

호나우두는 온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18년간 혼연 선수로 뛰며 월드컵에 서 두 차례 우승했고, 세 번이나 국제 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호나우두는 지난해 2월14일 은퇴 를 선언했으며, 6월7일 상파울루 시내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루마니아 대표팀 간의 친선경기에 출전해 공식 은퇴경기를 마쳤다.

호나우두는 은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연합뉴스〉

호나우두는 “축구협회 회장 후보 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프 랭스의 미셀 플라티니나 독일의 프란 츠 베른바워처럼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본명이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오 데 리마’인 호나우두는 1993년 브라

질 크루제이루 클럽에서 프로선수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네덜란드 PSV에 인트로벤, 스 페인 FC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인테 르밀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AC 밀란 등 유럽 명문팀을 두루 거쳐 2009년 브라질 코린치안스에 몸 담았다.

호나우두는 온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18년간 혼연 선수로 뛰며 월드컵에 서 두 차례 우승했고, 세 번이나 국제 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호나우두는 지난해 2월14일 은퇴 를 선언했으며, 6월7일 상파울루 시내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루마니아 대표팀 간의 친선경기에 출전해 공식 은퇴경기를 마쳤다.

호나우두는 은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연합뉴스〉

호나우두는 “축구협회 회장 후보 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프 랭스의 미셀 플라티니나 독일의 프란 츠 베른바워처럼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본명이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오 데 리마’인 호나우두는 1993년 브라

질 크루제이루 클럽에서 프로선수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네덜란드 PSV에 인트로벤, 스 페인 FC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인테 르밀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AC 밀란 등 유럽 명문팀을 두루 거쳐 2009년 브라질 코린치안스에 몸 담았다.

호나우두는 온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18년간 혼연 선수로 뛰며 월드컵에 서 두 차례 우승했고, 세 번이나 국제 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호나우두는 지난해 2월14일 은퇴 를 선언했으며, 6월7일 상파울루 시내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루마니아 대표팀 간의 친선경기에 출전해 공식 은퇴경기를 마쳤다.

호나우두는 은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연합뉴스〉

호나우두는 “축구협회 회장 후보 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프 랭스의 미셀 플라티니나 독일의 프란 츠 베른바워처럼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본명이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오 데 리마’인 호나우두는 1993년 브라

질 크루제이루 클럽에서 프로선수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네덜란드 PSV에 인트로벤, 스 페인 FC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인테 르밀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이탈리아 AC 밀란 등 유럽 명문팀을 두루 거쳐 2009년 브라질 코린치안스에 몸 담았다.

호나우두는 온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18년간 혼연 선수로 뛰며 월드컵에 서 두 차례 우승했고, 세 번이나 국제 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호나우두는 지난해 2월14일 은퇴 를 선언했으며, 6월7일 상파울루 시내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루마니아 대표팀 간의 친선경기에 출전해 공식 은퇴경기를 마쳤다.

호나우두는 은퇴와 함께 자신의 대 표팀 번호를 따 ‘나인(nine)’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차렸다.

〈연합뉴스〉

호나우두는 “축구협회 회장 후보 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프 랭스의 미셀 플라티니나 독일의 프란 츠 베른바워처럼 축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본명이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오 데 리마’인 호나우두는 1993년 브라

질 크루제이루 클럽에서 프로선수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네덜란드 PSV에 인트로벤, 스 페